

“뉴노멀” 시대의 중장기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2014년 제4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뉴노멀" 시대의 중장기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2. 일 시 : 2014. 10. 15(수) 16:00~18:00
3. 발표자 : 국가발전개혁위원 대외경제연구소 순쉐궁(孙学工)부소장

1. 뉴노멀 : 중국경제 진입의 새로운 단계

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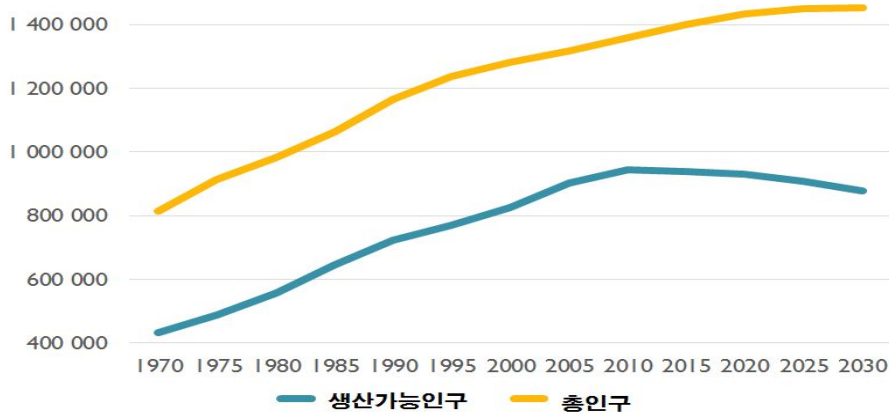
- 중국 경제는 새로운 경제성장단계인 뉴노멀 시대에 진입
 - 뉴노멀 시대의 주요 특징은 ▲ 경제성장속도 변화, ▲ 경제구조 변화, ▲성장동력 변화로 설명될 수 있음.
 - (성장속도) 그동안 연평균 10%이상의 고속성장을 보이던 중국경제가 최근 중고속 (7-8%) 성장을 보이고 있음.
 - (구조변화)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고, 소비율이 상승하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나타남.
 - (성장동력 변화) 풍부한 자원과 인구보너스가 감소하고 있으며, 혁신과 새로운 개혁이 필요함.

□ 경제성장속도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특징

- 뉴노멀 시대의 주요 특징은 경제성장 속도의 변화이며, 경제성장 속도의 변화가 다른 측면의 변화를 초래하게 됨.
- 보편적으로 90%이상의 국가들이 고속 경제성장 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현재 중국은 고속성장 후 경제성장률 둔화를 겪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이전 모습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중국은 개발도상국가, 중상등 소득수준, 공업화 중기단계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세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판단됨.

□ 요소공급의 변화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

- 첫째,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둘째, 인구구조 및 국민소득 분배 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요소공급의 변화로 저축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 저축률은 5%p내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셋째, 인력 재배치가 종반에 접어들고, 농촌의 과잉 노동력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2차 산업의 노동 흡인력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생산가능인구가 최고점에 도달한 뒤, 2012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년에 200~3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기존에는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근로자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월급 인상을 초래하고 있음.
 - 노동력 부족과 월급 인상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에 기여를 하던 노동집약형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수요측면: 경제 환경변화는 외수(外需)촉진을 약화

-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최근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선진국들은 경제 구조조정을 취소하고, 재공업화를 진행하고 있음.
 - 채무를 줄이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존 수입 의존 산업은 자체 제조 및 수출까지 시도하고 있음.
- 수요와 금융의 이중충격으로 신흥시장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 새로운 무역체제가 형성 중이며, TPP와 TTIP는 중국의 다각 무역을 약화시키고 있음.

□ 순수출 성장은 경제성장을 촉진 (최고 2-3% 촉진)

-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은 대외 수출에 많이 의존해 왔으며, 2002년부터 경제위기 전까지 매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30%에 달함.
 - 수출 증가율(%): ('02)22.4→('03)34.6→('04)35.4→('05)28.4→('06)27.2→('07)25.7
- 하지만, 작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목표치(8%)에 도달하지 못한 7.9%로 나타났으며, 2011년 4분기 이후(2013년 1분기 제외) 수출의 GDP성장률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나타남.



나.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

□ 구조조정의 일시적 혼란은 경제성장 속도를 제한

- 첫째, 생산설비 과잉 문제
 - 2012년 말, 강철,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판유리, 선박의 생산설비 이용률은 각각 72%, 73.7%, 71.9%, 73.1%, 75%로 나타나 국제 일반수준과 비교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 현재 중국은 수질, 대기,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전체 토지의 17%가 중금속에 오염되었고, 1/4의 지표수가 오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수토유실이 심해지고 있음.
 - 또한 고체폐기물, 자동차 배기가스, 지속적인 유기물, 중금속 등 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과거 200여년의 공업화를 겪은 선진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임.
- 셋째, 고에너지 소모의 산업구조와 자원의 높은 대외 의존도
 - 중국 단위 생산 총량의 에너지 소모는 세계 평균 수준의 2.5배, 미국의 2.5배, 일본의 7.6배, 유럽연합의 4.5배, 브라질의 2.6배에 달하며, 심지어 인도 등 개발도상 국가보다 높음.
 - 2009년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내외이지만, 중국에서 소모하는 강재는 세계의 46%, 석탄은 45%, 시멘트는 48%, 오일가스는 10%이며, 국내 석유, 철광석, 보크사이트, 동, 칼리암염 등 대중 광산물의 대외 의존도는 모두 50%를 초과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 (약 2~3p%의 하락을 초래)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공급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투입을 둔화시키고, 부양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저축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그동안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한 수출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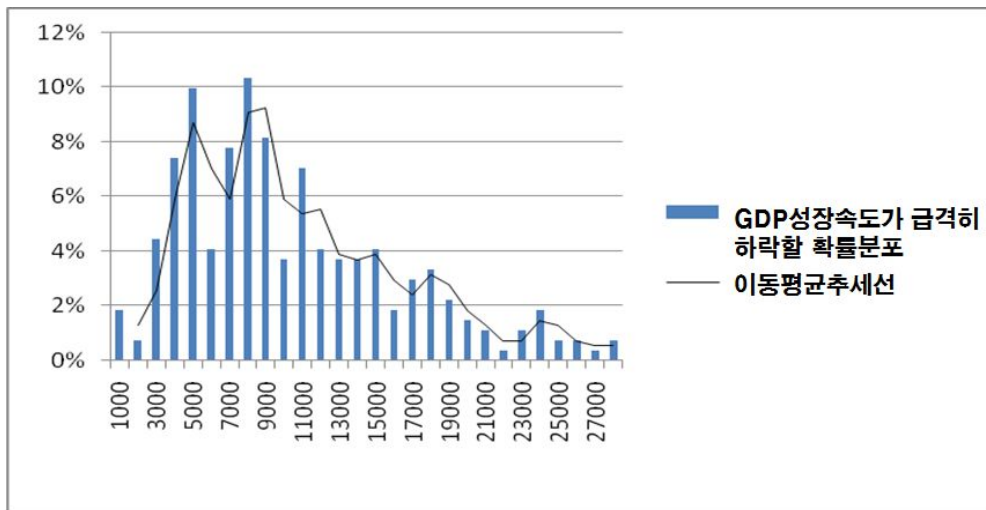
0.4%p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호정책 실행시 자연환경 제약 강화로 인한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 가능성이 존재함.

다. 경제성장률 감속은 예상되나, 중국은 여전히 경제 고성장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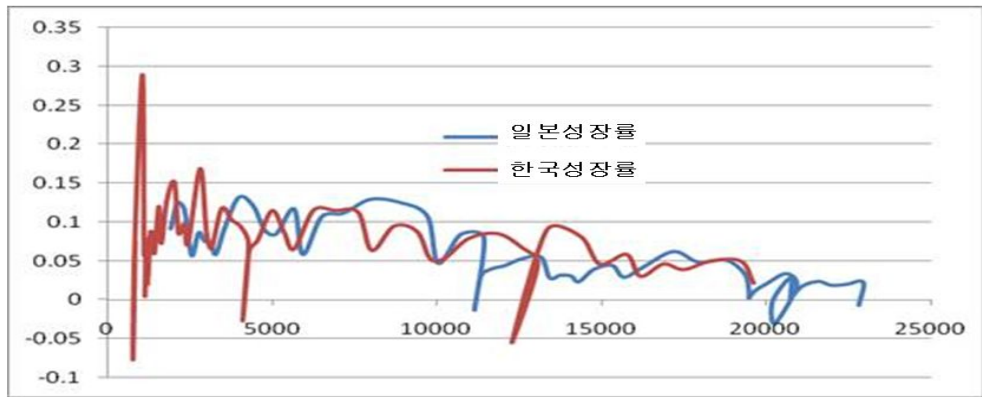
□ 중국은 여전히 중고속 성장 조건을 구비

- 국제적으로 볼 때 75%의 국가가 중등소득 단계에서 급속한 경제성장률 감속을 경험하였으나, 중국은 아직 경제성장이 뚜렷한 감속 구간에 도달하지 않음.



- 1인당 GDP가 약 11,000달러¹⁾인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음.
- 대부분 경제성장의 급속한 둔화는 4,000-15,000달러 구간에서 발생하며, 전체 국가의 3/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의 경우 1인당 GDP 10,000 달러이하에서 1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음.
- 2013년 중국의 1인당 GDP(6,700 달러)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구간(10,000-11,000달러)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임.

1) GDP 국제비교시 통용되는 기어라-카미스 달러(Geary-Khamis Dollar)를 뜻함. (1990년 달러기준)



- 중국의 도시화율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인프라시설도 투자 여지가 존재함.
- 노동의 질은 현저히 제고되고 있으며, R&D투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볼 때, 중국의 고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최근 인프라 건설로 교통운수 능력이 제고 되었지만, 여전히 중국 철도망은 미국의 1880년대 수준으로 향후 인프라 관련분야의 투자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 Top 10위 대도시 주변철도의 밀도는 선진국 수준보다 낮은 상황임.
 - 중국 공항의 수는 약 200개 정도이나, 미국은 약 20,000개에 달하고 미국 비행기 팀 규모는 중국의 4배로서 1인당 중국의 17배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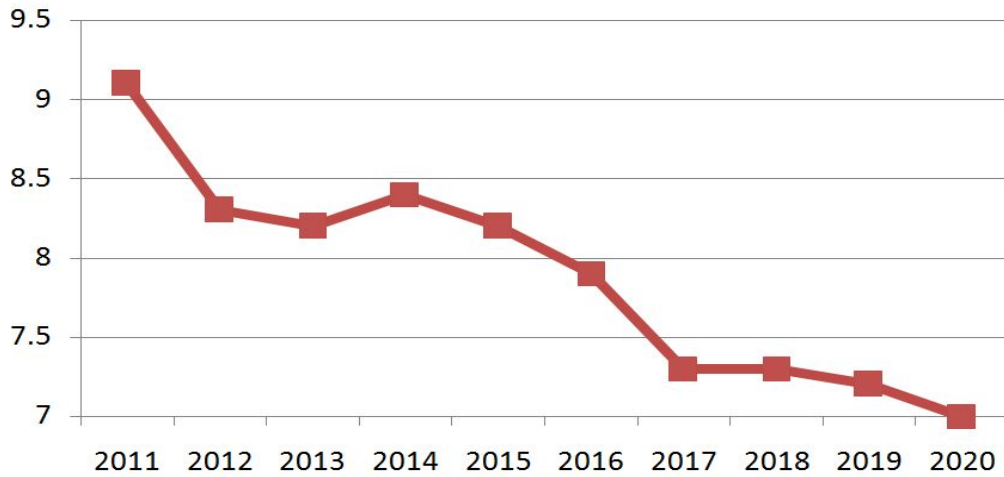
라. 경제속도가 둔화되지만 질은 제고, 비교우위 변화

□ 요소공급으로 경제속도가 둔화되지만 질은 제고

- 첫째, 인적자본 축적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노동력의 전반적인 질(質)제고
 - 중국의 1년에 대학 졸업자수가 770만 명, 10년 후 대학 졸업자 누적 수는 아마도 한국 인구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이는 중국 성장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고학력을 수요로 하는 첨단 기술 산업이 향후에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 증가, 투입액은 이미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위
 - 중국의 논문 발표율은 세계 1위, 다른 논문을 인용하는 비율은 세계 제4위임.
- 셋째, 자본축적의 질(質)제고, 국제 일류 수준의 중요한 기초시설과 중대 장비 건설

□ 중국 향후 10년 잠재성장률 예측

- 2011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둔화되고 있지만, 2020년 전까지 경제성장률 7%대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마. 경제구조 변화

□ 경제구조의 새로운 변화 및 특징

- 과거 중국 경제는 주로 투자 혹은 수출에 의존하여 발전해 왔으나, 현재 중국은 새로운 경제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음.
 - 과거 중국 경제는 높은 투자율, 높은 2차 산업 비율, 높은 수출비율의 “3고(三高)”현상을 보이면서 발전하였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투자율이 하락하면서 소비율이 상승하는 효과(Seesaw Effect)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2차 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경제구조는 투자 위주에서 내수소비 위주로 변화되고, 산업구조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

2. 뉴노멀 시대의 거시경제 정책

가. 수요 관련 정책 시행 및 공급 확대, 기초소비, 중점투자, 외수지원

□ 수요 정책: 중점 분야

-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도농 민생부문, 인프라 취약 부문, 산업혁신부문(산업정책 및 공급관리의 결합)의 투자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적절한 주택소비를 통한 안정적인 소비 증대, 산업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투자 분야의 개척이 이뤄져야 함.

□ 혁신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투자 구조 최적화

- 인프라 취약 부문, 도농 민생 분야(교육, 양로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정자산투자 구조를 최적화함.
- 기업의 노후 설비를 교체(특히 노동집약형 산업)하여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기준에 맞는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를 증가시킴.
- 정부 보조금 지원, 세수 우대정책 실시 등을 통한 R&D 투자를 확대함.

□ 소득분배 개혁을 통한 소비 업그레이드

- 소득분배 개혁을 위해서는 소비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생존형 소비, 성장형 소비, 향유형 소비가 모두 증가되어야 함.
- 정책적 환경의 조성을 통해 예상소비 안정화, 소비환경 개선, 소비자 비용 절감, 소비력 증가 등이 예상됨.

□ 중국 소비 도시화 추진의 새 국면

- 호적, 공공 서비스 전면 구축, 저비용 주택 등 중대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함.
- 가족단위 이주자의 시민화 우선 추진, 안정적인 직업의 종사자 및 직계 가족의 시민화 적극 추진, 점진적으로 부농의 도시민화 추진 등이 필요함.

□ 수출 업그레이드를 통한 외수 안정

- 노동집약형 수출 산업의 국외 이전 추진 등을 통한 전통 수출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수출 산업의 발전을 촉진, 기업의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함.
- 또한 서비스 무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무역 적자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산업 구조의 최적화: 2차 산업 비중의 감소,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노동집약형 산업 감축, 자본 특히 기술 집약형 산업
가속**

□ 공급: 산업 구조 최적화

- 산업구조는 정면 조정방식으로 최적화 업그레이드 추진이 필요하며, 자주 기술 혁신이 산업구조 최적화의 관건임.
-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략적 신흥 산업을 포함한 신흥 산업 (신에너지, 신소재,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존, 정보산업 등)의 발전이 이뤄져야 함.
-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중국 산업 성장의 축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시키고,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부 과잉산업의 국외 이전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함.

□ 산업구조조정: 2차 산업 최적화 우선 추진

- 산업 업그레이드 : 反대체와 再대체
 - 가속상각 (加速折旧), R&D 보조금 지원 등 노동집약형 산업설비 교체 및 기술혁신 방안을 이용한 자본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의 점진적 이전이 예상됨.
 - 대/중형 기업의 R&D활동 지원으로 업계 내 새로운 경쟁국면이 조성되었으며, 일부 산업의 “수입대체 (進口代替)”가 일어날 것임.

□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가속화

-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글로벌화 및 과잉공급업종의 국외 이전 등이 필요함.
-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집약형 기업의 국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기술 집약형 산업의 발전 추구해야 함.

□ 중국의 “설비과잉(產能過剩)”문제

- 중국의 경제성장은 현재 고속성장단계를 거쳐 중속성장 단계로 진입 중이며, 향후 10~15년 이내 중속성장 국면이 시현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빠른 글로벌화와 중국 고속 성장에 따라 증대된 생산능력은 절대적 과잉상태가 예상되므로, 외부 압력을 통한 조정이 필요함.
- 설비과잉 문제는 1) 산업 업그레이드, 2) 구조 조정 및 국외 이전, 3) 자연적으로 도태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함.
- 생산능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일부 과잉 생산 산업의 퇴출, 기업의 해외진출 및 과잉생산산업의 이전 등이 있을 수 있음.

□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경쟁 국면 조성

- 전략적 신흥 산업의 포인트는 ‘신흥’이 아닌 ‘전략’에 있으며, 동 산업의 육성 전략은 두 가지 각도에서 전개가 필요함.
 - 첫째, 비교우위를 고려한 보편적 육성으로, 신에너지, 신소재, 정보산업 등 신흥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향후 새로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함.
 - 둘째는 신흥 산업의 보편적 육성방안을 기초로 전략적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향후 기술 진보 및 국제시장 수요 변화에 근거하여 시대적 흐름에 비교적 적합한 산업을 선택하여, 신흥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 전략적 신흥 산업을 포함한 신흥 산업의 육성

-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네트워크인 “전면제어(前端控制)” 기제 및 산업 기

술협회의 구축 등 효율적인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 기제를 구축해야 함.

- 전략적 신흥사업과 기타산업의 상호협력 기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산업구조조정: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

- 그동안 중국은 과도한 통제로 3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어 왔으므로, 향후 관리제도의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서비스업의 양적 발전에 주력해야 함.
 - 금융서비스업의 성장은 직접용자의 발전, 금융시스템의 완비, 금융소매사업의 재구성 및 역주기(逆周期)조절에 유리하며, 리스산업의 발전은 생산능력과잉 해소 및 서비스상품 수출에 유리함.
 -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走出去)”과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혁신지원도 서비스업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임.

□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

- 신흥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시키기 위해 공업 디자인, 문화 콘텐츠, 금융 혁신 등 신흥 생산성 서비스업 적극 육성과 여행, 관광, 문화, 레저 등 생활 서비스업 발전이 필요함.
-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서비스산업 시장 진출 장려 및 지원, 기업물류 서비스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함.

<질의·응답>

질문 1

중국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7%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7% 성장에 있어서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런 위험요소들을 극복해 나갈 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 1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호전된다면 7%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가 쉬울 것임. 현재 국내적으로 부동산 분야가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작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었지만 올해 8월 통계에 의하면 매출이 8%정도 떨어짐. 부동산 관련 산업도 타격을 받음.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 타격은 1%로 예상 됨. 올해의 성장률 목표를 7.7%로 정하였는데 실제로 부동산 부분이 1%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올해 경제성장은 7% 유지가 어려움. 하지만 올해 상반기 수출 상황이 호전되었고, 미니경기부양책이 경제성장에 얼마간 기여하였기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은 7.3-7.4%가 될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임. 만약 내년까지 부동산 침체가 지속된다면 2015년 경제성장률은 7%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 외수 환경이 계속 위축될 경우는 방법이 없겠지만, 수출세를 감소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등 경기를 지원하는 부양책이 실시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임. 현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 예를 들면 중국내 대부분 지역은 이미 구매제한 정책을 취소하였고,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인증 기준을 느슨하게 완화하였음. 향후에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이 같은 조정 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또한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 계약금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춘다든가,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이사할 경우, 주택 구매자에게 최초 주택 구매 인증 기준의 혜택을 적용해 주는 등 정책도 가능 할 것임.

질문 2.

"뉴노멀"시대에도 기존 거시정책 재정정책기조인 "적극적인 재정정책, 안정적인 화폐정책"은 변함없을 것인지? 시진핑 주석이 9월에 하북 시찰시 "뉴노멀"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실제중국에서 "뉴노멀"을 최초로 제시한 분은 누구이신지?

답변 2.

"뉴노멀"시대의 거시경제 재정정책은 기존 정책과 다를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당분간 지금의 경제정책과 방향인 "적극적인 재정정책, 안정적인 화폐정책"은 유지될 것임. "뉴노멀"이란 단어는 세계경제를 설명하는데 사용한 단어로 2008년에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중국은 이 단어를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국에서 누가 제일 먼저 인용하였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름.

질문 3

2013년 산업 GDP 통계에 따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비중이 10%, 43.9%, 46.1%이고, 2014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7%, 46.0%, 47.0%로 나타남. 올해 상반기 농업, 제조, 서비스업 비중을 살펴보면, 실제로 농업, 서비스 비중이 더 높는데 왜 작년에 비해 낮아진 통계로 나왔는지? 중국 통계의 처리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답변 3

통계수치의 변화는 올해 공업제품 가격의 하락, 서비스업종 내 여러 요소비용 상승 등 요인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 외, 농업 비중의 변화가 비교적 큰 것은 농업의 특성상 통계수치의 60%가 하반기에 반영되므로, 상반기 통계와 전년 통계에 차이가 존재함. 올해 상반기 농업통계 수치와 작년 상반기 수치를 비교하여 보면 거의 비슷할 것임.

질문 4

한국도 중국과 유사하게 신흥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음. 중국은 2010년에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의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2010년에 GDP 3%, 2015년에는 GDP 8%, 2015년에는 GDP 15%로 정하였는데, 지금 2014년이 다 지나고 있는 현재 목표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추진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운 사항은 무엇인지? 13차 5개년 계획의 핵심사항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기 바람.

답변 4

GDP에 관련연구는 주로 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본인이 속한 연구원에서는 주로 거시경제에 관해 연구하므로 구체적인 GDP수치에 대해 알지 못함. 7대 전략 산업은 분야마다 발전 상황이 다름. 특히 태양광발전과 태양광제조 부분은 지난해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이 많이 지체되었으나, 올해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난 2년간 성장 목표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올해 9월부터 자동차 구매세금 면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목표 성장속도를 100% 달성하였음. 정보산업도 최근 몇 년간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추가적으로 13차 5개년 계획은 현재 작성중이어서 정확히 핵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경제발전을 위해 혁신 추진에 대해 많이 강조하기에 R&D 집약형 산업들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질문 5

“부동산 이후 시대”란 단어에 대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초래 될 가능성도 있음. 부동산업 이외에 경제성장 7%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 경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이나 분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인가?

답변 5

중국이 현재 과연 부동산 이후 시대에 진입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중국은 도시 화율이 아직 낮은 단계에 있음. 언론매체에서 중국 부동산 관련하여 주택이 넘쳐나 사람이 살지 않은 주택단지를 귀성(鬼城)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음. 예를 들면 정주(鄭州)의 정둥신취(鄭東新區)같은 곳을 말함. 사실은 지금은 그곳은 매우 변화하게 발전되어 있음. 때문에 현 단계에 중국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과잉 되었다거나 더는 발전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음. 중국은 아직 도시화율이 40%에 미달한 국가로 부동산 분야 발달이 절대적으로 과잉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 현재는 임시적 과잉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여전히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부동산 외에 제조업 같은 경우 특히 첨단기술 산업도 발전 여지가 많음. 특히 현재 전통산업에 정보산업, 인터넷 산업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산업도 많음. 그중 전자상거래가 약 30~40% 성장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관련 산업들의 발전도 이끌고 있음. 예를 들어 휴대폰 경우 중국의 샤오미(小米)휴대폰은 현재 정보와 인터넷 결합을 활용하여 신속히 성장하고 있음. 예전에 중국 LENOVO가 10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샤오미(小米)는 3년 사이에 이뤄냈음. 또한 제3 산업의 성장속도가 제2산업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생산서비스, 금융, 보험, 노인복지산업 등이 발전하게 되면 경제성장 유지에 유리할 것임.